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남아의 공격성간의 관계 및 세대간 전이

Fathering, Sons' Aggression, and the Transmission of Aggression

박 성 연*
Park, Seong Yeon

Abstract

The present study explored parenting behaviors of fathers associated with 3 types of aggression in their sons and identified inter-generational pathways of aggression. Subjects were 160 Korean elementary school(5-6th grade) boys and their fathers. Data were gathered via questionnaires. Results were that fathers' use of power assertive control and lack of open communication we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sons' use of both relational and proactive aggression. Fathers' encouragement of aggressive behavior was associated with sons' reactive aggression. Finally, fathers' aggression was not directly associated with sons' aggression, but was fully mediated by parenting. Results were discussed in terms of implications for the Korean cultural context.

Key Words : 공격성(aggression), 아버지의 양육행동(fathering), 세대간 전이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 접수 2002년 6월 30일, 채택 2002년 8월 5일

* 이화여자대학교 생활환경대학 소비자·인간발달학과 교수, E mail:psy@ewha.ac.kr

I. 서 론

최근에 이르러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폭력이나 공격적 또는 반사회적 행동이 두드러지게 표면화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은 물론 초등학교생이 폭력에 연루되거나 소년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점차 증가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공격성 또는 반사회적인 성향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더욱 강화되는 경향이 있고 지속적으로(Olweus, 1979; Tremblay, 2000), 청소년 범죄는 아동기에 습득된 행동의 연장 또는 확대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반사회적 행동의 예방적 차원에서 아동의 공격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인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다. 공격성은 학자에 따라 '상대방에 대해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해를 가하는 행동'이라고 정의(Loeber & Stouthamer-Loeber, 1998)하여 행동의 결과적 영향을 강조하기도 하나, 보다 널리 통용되는 것은 결과를 고려하지는 하지만 행위자의 의도를 강조하여 '자신이나 타인에게 상처나 고통을 주려는 의도를 가진 행위'로 정의된다(Berkowitz, 1993; Coie & Dodge, 1998). 이러한 의도적인 공격성은 타인에게 신체적, 심리적인 피해를 주게 됨은 물론, 공격자 자신의 심리적인 특성이나 적응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Crick & Grotpeter, 1995)에 중요한 연구주제가 되어왔다.

공격적인 행동 발달에 관한 연구들은 정신분석적 이론, 정보처리 이론, 사회학습 이론 등 연구자에 따라 다양한 이론적 관점을 취하고 있지만, 대부분 아동이 성장하면서 최초로 접하는 교육의 장인 가정내에서의 경험에 관한 내용이 주류를 이룬다. 이러한 연구들은 부모의 폭력적 행동을 관찰한 경험(노치영, 1988;

윤완기, 1994; Bandura, 1977)이나 애정결핍 및 강압적인 양육태도가 자녀의 높은 공격성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일치된 결과를 보고하고 있어(윤완기, 1994; 이현순, 1992; Hart, Yang, & Nelson, 2001; Martin, 1975; Patterson, DeBaryshe, & Ramsey, 1989; Shields & Cicchetti, 1998), 부모는 모델링이나 양육행동을 통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아동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결국, 양육행동에 관한 많은 연구들에서 밝혀졌듯이(Chamberlain & Patterson, 1995), 애정적, 합리적 지도행동은 아동에게 안정감을 주어 적응을 도와주는 한편, 강압적이고 권위주의적 부모의 태도는 설명적이지 않고 애정적인 지지가 없기 때문에, 자녀는 사회적인 기준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좌절감을 겪고, 자아 가치감이 저하됨으로써 다른 사람에 대해 비우호적인 공격성을 발달시키게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공격성에 관한 국내외 연구들은 대부분 공격성의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주로 공격성 또는 반사회적 행동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공격성을 연구하여 왔기 때문에 공격성 발달 이해에 한계가 되고 있다. 즉, 공격성은 표현방식이나 목표에 따라 신체적, 언어적 공격성, 또는 수단적(instrumental), 적대적(hostile) 공격성으로 그 유형이 구분하기도 하나 대체로 공격성이라는 단일개념으로 연구되어 왔다. 최근에 이르러 Crick과 Grotpeter(1995)는 성에 따른 공격성 유형의 차이를 가정하고 공격성을 외현적 공격성(externalizing aggression)과 관계적 공격성(relational aggression)으로 유형화하였으며, 이 두 가지 구성요소는 여러 문화권에서 확인된바 있다(Hart, Nelson, Robinson, Olson, & McNeilly-Choque, 1998; Tomada &

Schneider, 1997). 외현적 공격성이란 공격유발 대상에게 직접 신체적 또는 언어적 공격을 행하는 것이며, 관계적 공격은 집단의 힘이나 압력을 이용하여 개인의 감정이나 관계를 손상시키거나 위협함으로써 남에게 해를 주는 간접적인 형태의 공격성이다(Crick & Grotpeter, 1995). 일반적으로, 남아는 지배적인 지위에 관심이 크고 여아는 사회적 관계에 관심이 크기 때문에 외현적인 공격성은 남아에게서 더 많이 나타나고 관계적인 공격성은 여아에게서 더 주된 유형으로 인식되고 있다(Crick, Casas & Mosher, 1997; Crick & Grotpeter, 1995; Crick, Werner, Casas, O'Brien, Nelson, Grotpeter, & Markon, 1999; Hart, Yang, Nelson, & Robinson, 2001). 그러나 또 다른 연구들에서는 남아가 여아보다 두 가지 공격성이 모두 높다고 보고(Schwartz, Chang, & Farver, 2000; Tomada & Schneider, 1997)하는가 하면, 외현적 공격성에서는 남아가 높은 공격성을 보이나, 관계적 공격성에서는 성차가 없다는 결과(김민정, 2000)도 있어, 아동의 연령이나 문화에 따라 비밀관적이기는 하나, 남녀 모두 두 가지 형태의 공격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한편, Dodge와 Coie(1987)는 공격성을 반응적(reactive) 공격성과 주도적(proactive) 공격성으로 구분하고 반응적 공격성은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한 적대적 귀인과 관련이 있는 반면, 주도적 공격성은 무관한 것으로 밝혀, 공격성의 두 유형은 그 구성요소가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이들에 의하면, 주도적 공격성은 공격행동을 통해 구체적인 보상을 획득하려는 수단적인 성격의 공격성이지만, 반응적 공격성은 위협이나 도발을 느끼게 한 대상에 대한 일종의 분노 반응 및 방어적인 공격성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공격성 각 유형에 따라 공격적 행동

의 표현 방식은 물론, 발달적 기원 및 이와 관련된 양육행동 역시 다를 것으로 추론된다. 예를 들어, 주도적 공격성이나 관계적 공격성은 지배적인 지위나 사회적 관계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되는 경향(Crick & Grotpeter, 1995)이 크므로 격한 감정이 개입되기보다는 양육행동으로 인한 불만이나 욕구좌절로부터 온 행동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반응적 공격성은 다른 유형의 공격성보다 정서적인 강도가 높고(Berkowitz, 1993; Dodge & Coi, 1987), 자신을 방어해야만 하는 절실한 욕구로 인해 자극에 예민하며 적대적인 귀인 성향이 높은 아동에게서 많이 나타난다(Shield & Cicchetti, 1998).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반응적 공격성은 특히 부모의 처벌적인 행동이나 적대적 행동을 조장하는 행동과 관련이 깊을 것으로 가정된다. 더욱이 부모가 처벌적이거나 강압적일 때, 또는 반응적이지 못할 때, 외현적 공격성이나 관계적 공격성이 높았으나, 각 양육행동이 각 공격성 유형에 미치는 영향력 정도는 서로 달랐다는 Hart 등(2001)의 연구결과는 같은 양육행동이라도 공격성 유형에 따라 그 영향력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공격성간의 관계를 파악한 연구들은 많은 반면, 부모가 부적절한 양육행동을 하게 되는 원인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는 드물어, 아동의 공격성을 유발하게 되는 양육행동의 선행변인이나 발달경로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생태학적 측면에서 아동의 공격적 행동의 기원을 설명한 대표적 이론으로 Patterson의 강압모델(coercion model)을 들 수 있는데(Bee, 1997), Patterson 등(1989)은 부모가 자라온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에 이르는 양육방식과 더불어 강압적인 부모-자녀관계가 역동적으로

반복됨으로써 공격성이 더욱 촉진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Belsky, Hsieh, Jaffe와 Silva(2001)는 뉴질랜드 종단 연구를 통해 변화가능성은 있으나 대체로 자녀와의 관계는 부모가 받은 양육경험의 결과임을 입증함으로써, 부모는 자신의 부모로부터 직접, 간접으로 자기 자녀를 기르는 방식을 배우게 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사실상 생애발달적 관점에서 종단적인 연구를 수행해 온 학자들에 의하면, 청소년기 또는 성인의 공격성은 생후 초기의 공격적 행동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Rubin, Stewart, & Chen, 1995; Tremblay, 2000), 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은 공격성에 대한 정서적 무감각이나 습관화를 야기시켜 공격성에 대한 허용적 태도를 갖게 되고, 나아가 자신의 자녀를 양육할 때도 자녀의 공격적인 행동에 대해서 보상적으로 반응하게 된다고 한다(Walker, 1979). 비슷한 맥락에서 Huesmann, Eron, Lefkowitz과 Walder(1984), 그리고 Pulkkinen(2000)의 종단 연구에서도 개인의 공격성은 상황이나 시간에 걸쳐 지속될 뿐 아니라, 세대간에 일관성을 지닌다고 보고되고 있다.

결국 부모의 부적절한 양육행동은 아동에게 공격적인 행동양상을 형성시킬 뿐 아니라 지속시키고, 더 나아가 성인이 되었을 때 자신의 자녀를 양육하는데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 등 부모의 행동은 양육행동을 통해서나 공격성 모델로서 다음 세대인 자녀들에게 전이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남이는 여아보다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 공격적인 행동이 비교적 용납되는 한편, 처벌이나 통제를 더 많이 받기 때문에 공격성이 발달할 위험성이 크다(Rubin, Hastings, Chen, Stewart, & McNichol, 1998). 또한 남아의 경우 남에게 공격을 당하

는 것에 대해 부모가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공격자의 행동에 대한 반응으로 아들의 공격을 조장하기 쉽다. 더욱이 학대의 세대간 전이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부모는 학대 행동 등 심한 처벌행동을 같은 성의 부모로부터 배우고(Davis & Allen, 1995), 아들은 아버지를 모델링하거나 동일시함으로써 아버지의 행동을 학습하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의 공격성을 양육행동과 관련지어 연구하는 것은 공격성의 세대간 전이를 연구하는 효과적인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공격적인 행동발달이나 그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사회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르므로(Hart et al., 2001), 공격성을 남성의 보편적인 특성으로 인식하는 등 성 고정관념이 지배적인 우리 문화에 비추어 볼 때,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아들의 공격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가정되며, 부자간의 공격성의 세대간의 전이를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학대 수준에서의 사례보고나 연구의(Davis & Allen, 1995; Walker, 1979)에는 일반 집단을 대상으로 부모-자녀세대 간의 공격적 행동의 전이를 다룬 연구는 거의 없다. 더욱이 지금까지 국내외 공격성 연구들은 공격성 유형을 구분한 연구가 드물 뿐더러, 각 공격성 유형이 다른 구성요소로서 각 공격성 유형에 미치는 양육행동의 영향력이 다를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고려가 거의 없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제한점을 보완하고자 아버지와 아들을 대상으로 최근 연구들의 관심이 되고있는 관계적 공격성외에 직접적 공격형태인 외현적 공격성을 주도적 공격성과 반응적 공격성으로 구분하여 이와 관련된 양육행동을 탐색하고자 한다. 나아가 남아의 공격성발달에서 아버지의 영향력 및 공격적 행동의 세대간 전이를 파악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1세대인 할아버지의 양육행동이 2세대인 아버지의 공격성 및 자녀양육행동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2세대인 아버지의 공격성이 자신의 자녀양육행동 및 3세대인 아들의 공격성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그 경로를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아들의 각 공격성 유형은 아버지의 애정·합리적 태도, 개방적 의사소통과

부적인 상관, 강압적 및 공격성 조장 행동과는 정적인 상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특히 반응적 공격성은 공격성 조장 행동과 높은 상관이 있을 것으로 가정되었다. 또한 할아버지의 양육행동은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공격성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아버지의 공격성은 아들의 공격성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되었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도에 위치하는 초등학교 5, 6학년 남아와 부모 160쌍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자를 초등학교 5, 6학년 남아로 한정된 것은 발달과정으로 보아 12세 전후가 공격성이 비교적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하는 시기이며(Tremblay, 2000), 대부분의 공격성 연구에서 여아보다는 남아에게서 공격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기 때문이다.

연구대상 아동의 평균 연령은 11.6세이었고, 아버지의 평균연령은 43세이었으며 교육수준은 대부분이 고등학교졸업 이상의 학력(93.1%)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이들의 직업은 대부분이 자영업이었으며(35%), 그 다음은 회사원(30%)순으로 나타났다. 가족의 월평균 소득은 약 246만원으로 나타났고, 응답자들의 대부분(60%)이 가정의 경제수준을 중류로 지각하고 있었다.

2. 측정도구

아버지와 아들의 양육행동과 공격성을 측정

하기 위한 질문지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자가 개발하였으며, 응답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같은 척도문항을 평정자(아버지, 어머니, 아동)에 따라 각기 따로 작성하였다. 즉, 아버지의 공격성 척도는 어머니 및 아버지 자신이 평정하였으며, 아버지의 양육행동척도는 어머니와 아동이 평정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할아버지의 양육행동에 관한 질문지는 자료수집의 어려움으로 인해 부득이 아버지 혼자 자신의 아버지를 회고하여 평정하였다. 한편 아동의 공격성 역시 교사와 아동자신 두 평가자가 평정하도록 계획하였으나 선행연구인 박혜경(2001)에서 공격성 유형별 변별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는 교사 자료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1) 아버지의 양육행동 척도 및 의사소통척도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질문지 문항은 박성연(1989)를 참고로 애정·합리적, 강압적 양육행동 관련문항을 작성하고 공격성 조장 행동문항을 개발하여 총 28개 문항으로 된 양육행동척도를 구성하였으며, 의사소통 척도는 오미경(1997)연구에서 사용된

7문항을 사용하였다. 총 35개 문항으로 구성된 질문지는 예비조사와 신뢰도 분석 및 요인분석을 거쳐, 최종적으로 16개 문항의 양육행동 척도와 5개 문항의 의사소통 척도로 본 조사 측정도구를 확정하였다. 모든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평가하는 Likert식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그러한 행동을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하며, 의사소통은 점수가 높을수록 개방적임을 뜻한다.

수집된 양육행동척도 자료에 대해서 평가자 별로(아버지, 어머니, 아들) varimax rotation을 통한 주성분 분석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버지(할아버지 양육행동)와 어머니의 평가(남편의 양육행동) 및 아동평가(아버지 양육행동)에서 예상한바와 같이 3개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각 요인에 포함된 문항 내용으로 보아 1요인은 강압적 행동(6문항), 2요인은 애정·합리적 행동(5문항), 그리고 3요인은 공격성 조장행동(5문항)으로 명명하였다. 이 세 요인은 각각 할아버지와 남편의 양육행동 총 변량을 55.7%와 49.9% 설명하였으며, 아들이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행동 전체변량의 52.5%를 설명하였다.

Cronbach α 값으로 측정한 각 척도의 신뢰도 범위는 할아버지의 양육행동에 대한 아버지 보고는 .78~.81,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관한 어머니보고는 .71~.79, 아동보고는 .75~.78이었으며 개방적 의사소통은 각 평가자에 따라 .80~.88로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다(<표1> 참조).

2) 공격성 척도

아버지 및 아동의 공격성 척도는 주도적,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정의(Crick & Grotpeter, 1995; Dodge & Coie, 1987)를 근거로 척도 문항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외현적 공격성은 공격유발 대상에게 직접 신체적

또는 언어적 공격을 행하는 것이며, 관계적 공격성은 개인의 감정이나 관계를 손상시키거나 위협함으로써 남에게 해를 주는 간접적인 형태의 공격성으로 정의되었다(Crick & Grotpeter, 1995). 한편, 반응적 공격성은 다른 사람의 공격적 행동에 대해 보복적으로 공격을 가하는 행동으로 정의되었다(Dodge & Coie, 1987).

(1) 아버지의 공격성 척도

아버지의 공격성 척도 중 주도적, 관계적 공격성에 관한 문항은 Straus(1979)가 제작한 Conflict Tactics Scales 중 일부인 10개 문항을 발췌하여 사용하였다. 반응적 공격성은 Dodge와 Coie(1987)의 정의에 근거하여 본 연구자가 5개 문항을 개발한 후, 아동학 박사 3인을 대상으로 문항의 안면타당도를 확인하였으며, 예비조사와 신뢰도 분석을 거쳐 15개 모든 문항을 본조사에 사용하기로 하였다. 응답 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게 한다(5점)'로 평가하는 5점 Likert식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성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아버지 자신의 보고 및 어머니 보고자료 15개 문항에 대해 요인분석한 결과 예상한 바와 같이 아버지, 어머니 모두 3개 요인으로 구분되었으며 각 요인에는 동일한 5개문항씩이 포함되었다. 각 요인에 포함된 문항 내용으로 보아 1요인은 주도적 공격성, 2요인은 관계적 공격성, 그리고 3요인은 반응적 공격성으로 명명하였다. 주도적 공격성은 '아내에게 겁을 주거나 위협한다' 관계적 공격성 문항은 '아내를 무시하거나 말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반응적 공격성 문항으로는 '누가 나를 무시하는 행동이나 말을 하면 결코 가만히 있지 않는다'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 세 요인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보고한 아버지의 공격성 총 변량을 각각

59%와 61%를 설명하고 있으며, Cronbach's α 값으로 본 공격성 각 요인의 신뢰도는 아버지 자신 및 어머니 평가 모두 각 유형별로 .75 ~.88 범위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 참조).

(2) 아동의 공격성 척도

아동의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Crick와 Grotper(1995)의 공격성 정의와 Schwartz, Chang, 와 Farver(2000)의 공격성 척도를 참고로 외현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 반응적 공격성을 포함하는 총 23개 문항으로 된 아동용 질문지를 개발하였다.

아동용 공격성 척도는 선행연구(박혜경, 2001)를 통한 신뢰도 분석을 거쳐 문항을 수정 보완

한 후, 20개의 본 조사 문항을 확정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Varimax 회전으로 주성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세개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아버지와 어머니가 보고한 공격성과 달리 제 1요인은 반응적 공격성(8문항), 제 2요인은 관계적 공격성(6문항), 그리고 제 3요인은 주도적 공격성(6문항)으로 명명하였다. 반응적 공격성 문항으로는 '나를 해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복수하고 만다', 주도적 공격성은 '나는 다른 아이를 밀치거나 때린다' 그리고 관계적 공격성 문항은 '나는 다른 아이를 따돌려 그 아이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 세 요인은 아동의 공격성 전체변량의 47.1%를 설명하며, 각각의 Cronbach's α 값 신뢰도는 .79, .77, .78로 나타났다(<표 1> 참조).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적임을 뜻한다.

<표 1> 각 척도의 요인 및 신뢰도

부모의 양육행동 척도	신뢰도		
	할아버지 양육행동 (아버지보고)	아버지 양육행동 (아내보고)	아버지 양육행동 (아동보고)
요인1 강압적 행동(6문항)	.81	.79	.78
요인2 애정·합리적 행동(5문항)	.78	.71	.75
요인3 공격성 조정행동(5문항)	.80	.76	.76
개방적 의사소통(5문항)	.88	.88	.80
공격성 척도			
아버지의 공격성			
자기보고 요인1 주도적(5문항)	.86		
요인2 관계적(5문항)	.79		
요인3 반응적(5문항)	.75		
아내보고 요인1 주도적(5문항)	.88		
요인2 관계적(5문항)	.81		
요인3 반응적(5문항)	.77		
아동의 공격성			
자기보고 요인1 반응적(8문항)	.79		
요인2 관계적(6문항)	.77		
요인3 주도적(6문항)	.78		

3. 자료수집 절차

자료수집을 위해서는 질문지의 문항에 대한 연구대상자들의 이해도를 파악하기 위한 예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문항 내용의 일부를 수정 확정 한 후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서울시를 포함한 경기도에 위치하는 초등학교를 선정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얻은 후, 2개교 12개 반의 남학생과 그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즉, 아동용 질문지는 교사를 통해 대상 아동들이 교실에서 완성하도록 하였으며, 아버지용 및 어머니용 질문지는 아동이 집으로 가져가 부모님이 완성하도록 부탁한 후 일주일 이내에 회수하였다. 아동에게 배부된 질문지 총 200부 중 175부가 수거되었으며, 조사자료 중 한 가지이상 누락되었거나 불성실한 응답이

있는 15부를 제외하고 총 160사례를 자료분석에 사용하였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빈도, 백분율, 요인분석, 및 Cronbach's α 계수에 의한 내적 신뢰도를 산출하였고, 연구문제 분석을 위해서는 Pearson 적

률상관관계 및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과정에서 두명의 평가자를 사용한 아버지의 공격성 유형 점수와 아버지의 양육행동 요인 점수는 평가자 편견으로 인한 오류를 최소화하고 응답자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각각 어머니와 아버지보고, 그리고 어머니와 아동의 점수를 Z점수로 환산하여 합산한 후 그 평균점수를 이용하였다.

III. 연구 결과 및 해석

1. 할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아버지의 공격성 및 아버지의 양육행동간의 관계

할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아버지의 공격성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표 2> 참조), 예상한바와 같이 할아버지의 거부·강압적인 양육행동은 아버지의 모든 공격성 유형과 $r = .23 \sim .29$ 의 유의한 정적관계를 나타내었다. 한편, 공격성 조장 행동은 특히 반응적인 공격성과 유의한 정적 관계($r = .30, p < .001$)를 그리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은 특히 관계적 공격성과 유의한 부적 관계($r = -.23, p < .01$)를 나타내었다. 그러

나 애정·합리태도는 공격성과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특히 아버지의 역기능적인 양육행동이 아들의 공격성과 관련됨을 알 수 있다. 한편, <표 2>에서 보듯이 1세대인 할아버지의 양육행동은 모든 하위 요인에서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었으며, 여러 양육행동 요인 중 특히 공격성 조장 행동에서 $r = .37(p < .001)$ 의 높은 상관을 나타내 양육행동의 세대간 전이를 시사한다.

2. 아버지의 공격성과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아들의 공격성 간의 관계

<표 3>에서 보듯이 아버지의 모든 유형의 공격성은 아들에 대한 강압적 행동이나 공격성 조장 행동과 높은 정적상관을 나타냈으며, 의사소통과는 부적상관을 나타내는 등 부정적인 양육행동과 관련되었는데, 이중에서도 특히 강압적인 양육행동과 $r = .39 \sim .57$ 의 높은 상관을 보였다. 그러나 아버지의 반응적, 관계적 공격

<표 2> 할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아버지의 공격성 및 양육행동간의 Pearson 상관관계

할아버지 양육행동	아버지 공격성				아버지 양육행동			M(SD)
	반응적	관계적	주도적	예정합리	강압	공격조장	의사소통	
애정·합리	-.13	-.13	-.03	.30***	-.03	.01	.18*	3.42(.75)
강압	.29***	.25**	.23**	-.14	.23**	.24**	-.16*	2.02(.67)
공격성 조장	.30***	.09	.19*	.05	-.00	.37***	-.02	2.29(.74)
의사소통	-.17*	-.23**	-.15	.10	-.04	-.09	.18*	3.11(.85)

* $p < .05$, ** $p < .01$, *** $p < .001$

1) 사회인구학적인 변인인 교육이나 사회경제적 지위는 공격성이나 양육 행동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아 모든 분석에서 통제하지 않았다.

<표 3> 아버지의 공격성과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아들의 공격성간의 Pearson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아버지 공격성										
1. 반응적	-									
2. 관계적	.43***	-								
3. 주도적	.44***	.54***	-							
아버지양육행동										
4. 애정·합리	-.05	-.09	-.33***	-						
5. 강 압	.39***	.57***	.47***	-.38***	-					
6. 공격성조장	.25***	.36***	.27**	-.15	.46***	-				
7. 의사소통	-.20***	-.33***	-.41***	.65***	-.53***	-.16*	-			
아들의 공격성										
8. 반응적	.01	.09	.09	.03	.13	.28***	-.08	-		
9. 관계적	.09	.13	.02	-.04	.29***	.38***	-.10	.25***	-	
10. 주도적	.01	.16*	.17*	-.11	.21**	.37***	-.25***	.43***	.51***	-
M	-.02	.01	-.08	.003	.09	.10	.01	2.43	1.61	1.65
SD	.82	.75	.88	.87	.88	.85	.84	.55	.43	.45

*p<.05, **p<.01, ***p<.001

주) 변인 1~7까지의 Mean은 Z점수임

성은 대체로 아들에 대한 애정적 양육행동과는 상관이 없었으며, 주도적 공격성의 경우에만 애정적 행동과 유의한 부적 상관($r=-.33, p<.001$)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아버지의 공격성은 역기능적인 양육행동과 관련이 있으며 특히, 아버지가 주도적인 공격성이 높을 경우, 아들에게 애정적, 합리적이지 못함을 알수 있다. 또한,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아들의 공격성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아들의 관계적 공격성 및 주도적 공격성은 아버지의 양육행동 중 강압적 양육행동(각각 $r=.29, p<.001$; $r=.21, p<.01$) 및 공격성조장 행동(각각 $r=.38, p<.001$; $r=.37,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또한 주도적 공격성은 의사소통과 부적인 관계($r=-.25, p<.001$)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아들의 반응적 공격성은 아버지의 공격성 조장 행동과만 유의한 상관관계($r=.28, p<.001$)를 나타내었다.

한편, 아버지의 공격성과 아들의 공격성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예상과는 달리 아버지의 공격성은 아들의 공격성과 대체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고, 아버지의 관계적 공격성과 주도적 공격성이 아들의 주도적 공격성(각각 $r=.16, p<.05$; $r=.17, p<.05$)과만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었다.

단순상관관계에 근거하여 볼 때 아들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아버지 변인은 자신의 공격성보다는 양육행동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가정할 수 있다. 이에 아들의 각 공격성유형 점수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1단계에서 공격성 각 유형 점수를 투입하고 2단계에서 아버지의 양육행동 각 요인점수를 투입한 두 단계 위계적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표 4>에서 보듯이 아버지의 각 공격성 유형은 아들의 공격성 모든 유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아니었으며, 아버지의 양육행동, 즉 강

〈표 4〉 아동의 각 공격성 유형에 대한 아버지의 공격성 및 양육행동의 위계적 회귀분석

		반응적		관계적		주도적	
		β	ΔR^2	β	ΔR^2	β	ΔR^2
1단계	<u>아버지의 공격성</u>						
	반응적	-.11		-.14		-.15	
	관계적	-.07	.01	-.06	.02	-.03	.03
	주도적	.08		-.14		.08	
2단계	<u>아버지의 양육행동</u>						
	애정·합리	.21 [†]		.09		.16	
	강 압	.03	.10	.25*	.16	-.03	.13
	공격성조장	.30***		.33***		.38***	
	의사소통	-.17		-.06		-.32**	
	R^2		.11		.18		.16
	F(df)		2.54(7, 151)		4.87(7, 151)		5.23(7, 147)
	p=		.017		.000		.000

[†]p<.10, *p<.05, **p<.01, ***p<.001

압적, 공격성 조장, 의사소통만이 아들의 반응적, 관계적, 주도적 공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반응적인 공격성의 경우는 공격성 조장행동($\beta = .30, p < .001$)만이 영향을 미쳤고, 관계적 공격성에는 강압적 행동($\beta = .25, p < .05$)과 공격성 조장 행동($\beta = .33, p < .001$)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주도적 공격성의 경우는 공격성 조장행동($\beta = .38, p < .001$)과 의사소통($\beta = -.32, p < .001$)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결국 아버지 양육행동은 아들의 공격성 유형에 따라 그 상대적인 기여도가 달랐다.

3. 공격성의 세대간 전이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할아버지의 양육 행동은 아버지의 공격성과 관련되었고 아버지의 공격성은 아들에 대한 양육행동과는 관련이 있었으나 아들의 공격성과는 거의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격성의

세대간 전이, 즉 아버지의 공격성이 아들에게 전이되는 경로는 양육행동에 의해 매개된다고 가정되었다. 이러한 가정을 규명하기 위해 아버지의 공격성과 양육행동간의 관계 그리고 아버지의 공격성과 아들의 공격성간의 관계(<표 3>)를 기초로 Baron과 Kenny(1986)의 경로분석 제안²⁾에 따라 두 단계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우선 이들의 가정에 준하여 독립변인인 아버지의 공격성과 종속변인인 아들의 공격성을 매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양육행동(강압적 행동, 공격성 조장행동 및 의사소통)을 선정한 후 두 단계 위계적 회귀분석을 한 결과, Baron 과 Kenny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다음의 네가지 경로를 통해서였다. 첫째, 1단계에서 아버지의 관계적 공격성이 아들의 주도적

2) 매개 효과가 검증되기 위해서는 우선 독립변인은 매개변인과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주어야 하고, 매개 변인은 종속 변인에도 영향을 주어야 하며, 이러한 조건이 충족된 후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을 동시에 회귀시켰을 때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은 감소되거나 사라져야 한다.

공격성에 미쳤던 유의한 영향($\beta=.16$, $R^2 = .028$ $p<.05$)은 아버지의 공격성 조장 행동이나 의사소통 변인을 추가함으로써 유의하지 않게 되었다(각각 $\beta=.03$, ns; $\beta=.09$, ns)(<표 5>참조).

<표 5> 아동의 주도적 공격성에 대한 아버지의 관계적 공격성 및 양육행동, 의사소통의 위계적 회귀분석

단계	예측변인	β	예측변인	β
1	관계적 공격성	.16*	관계적 공격성	.16*
2	관계적 공격성	.03	관계적 공격성	.09
	공격성 조장	.36***	의사소통	-.22**
	R^2	.13		.07
	F(df)	11.76(2, 152)		5.49(2, 152)
	p=	.000		.005

또한 아버지의 주도적 공격성이 아들의 주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beta=.17$, $R^2 = .025$, $p<.05$) 역시 아버지의 공격성 조장 행동이나 의사소통 변인을 추가함으로써 유의하지 않게 되어(각각 $\beta=.07$, ns; $\beta=.08$, ns) 완전한 매개

효과를 보였다(<표6> 참조).

<표 6> 아동의 주도적 공격성에 대한 아버지의 주도적 공격성 및 양육행동, 의사소통의 위계적 회귀분석

단계	예측변인	β	예측변인	β
1	주도적 공격성	.17*	주도적 공격성	.17*
2	주도적 공격성	.07	주도적 공격성	.08
	공격성 조장	.34***	의사소통	-.21*
	R^2	.14		.07
	F(df)	12.19(2, 152)		5.42(2, 152)
	p=	.000		.005

결국, 할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아버지의 공격성 및 양육행동간의 상관관계, 그리고 아버지의 공격성과 아버지의 양육행동 그리고 아동의 공격성간의 상관관계 및 경로분석 결과를 통해 볼 때, 할아버지의 양육행동은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아버지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며, 아버지의 공격성은 의사소통방식이나 공격성 조장 행동을 매개로 아들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IV. 논 의

본 논문은 초등학교 5~6학년 남아와 아버지 160쌍을 대상으로 반응적, 관계적, 주도적 공격성과 양육행동간의 관계 및 공격성의 세대간의 전이과정을 파악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공격성과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질문지를 이용하여 아버지, 어머니, 아동 등 여러 보고자들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문제 분석을 위해서는 양육행동 및 공

격성이 할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3세대에 걸쳐 서로 어떠한 관계를 나타내는지 규명하기 위해서는 Pearson 상관관계 분석 및 위계적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할아버지의 양육행동은 아버지의 공격적인 행동과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 할아버지가 강압적인 양육행동을 보일 경우 아버지의

반응적, 관계적, 주도적 공격성 등 모든 유형의 공격성이 높았다. 이외에도 할아버지의 폐쇄적인 의사소통은 아버지의 반응적 공격성 및 관계적 공격성과 관련되는 한편, 공격성 조장 행동은 특히 반응적 공격성과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할아버지의 애정·합리적 행동은 아버지의 공격성과 아무 관련이 없었다. 또한, 아버지의 양육행동은 할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 세대간 유사성을 보였으며 특히 공격성 조장 행동에서 비교적 높은 상관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자라온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에게 이르는 양육방식과 더불어 강압적인 부모-자녀관계가 역동적으로 반복됨으로써 공격성이 촉진되며(Patterson et al., 1989), 자신의 부모로부터 경험한 지지적인 양육이 다음 세대의 지지적인 부모자녀관계를 예측하게 한다는 Belsky 등(2001)의 연구를 지지하는 것이다.

둘째, 아버지의 공격성은 아들에 대한 양육행동과 관련을 나타내, 아버지가 반응적, 관계적, 주도적 공격성이 높을 경우, 아들에게 강압적인 행동이나 공격성 조장 행동을 보이는 한편, 폐쇄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버지의 공격성은 대체로 애정적인 행동과는 관련이 없었다. 한편, 아버지의 공격성 조장 행동이나 강압적인 양육행동은 아들의 높은 관계적, 주도적 공격성과 관련되었다. 특히 흥미롭게도 아들의 공격성중 반응적 공격성은 아버지의 공격성 조장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할아버지와 아버지 세대간에 유사성을 보였다. 이와 같이 아버지나 아들의 경우 모두 반응적 공격성이 그 아버지의 공격성 조장행동과 높은 상관을 나타낸 본 연구 결과는 어려서부터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준 상해에 대해 보복적인 행위를 하도록 사회화된 경우 반응적 공격성이 더 두드러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아버지의 공격성과 양육행동이 아들의 공격성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강압적, 공격성 조장, 의사소통행동 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아버지의 각 양육행동은 아들의 공격성 유형에 따라 그 기여도가 달랐다. 이러한 결과는 Hart 등(2001)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공격성을 단일차원을 다루기보다는 외현적, 관계적 반응적 등 공격성 유형을 구분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반응적 공격성 발달과 관련된 선행조건은 일반적인 공격지향적 공격성과는 구별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예상과는 달리 아버지의 공격성은 아들의 공격성과 대체로 약한 상관을 나타내었다. 상관관계 분석 및 경로분석 결과 아버지의 공격성은 아들의 공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신 아버지의 양육행동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해 보면, 양육행동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은 공격성 유형에 따라 다르며 할아버지의 양육행동은 아버지의 공격성과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간접적으로 아들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공격성 발달에서 모방 학습이론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즉, 적어도 5~6학년 아동의 경우는 아버지의 공격적인 행동을 단순히 모방한다기보다는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이나 아버지의 양육행동 등 아버지와의 관계가 더욱 중요한 변인임을 시사한다. 또한 공격성 유형 모두가 주로 강압적인 양육행동과 높은 상관을 나타낸 본 연구결과에 비추어 해석해 볼 때, 공격적 행동이 단순한 모방에서

나타나기보다는, 강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양육행동이 아동에게 욕구좌절이나 분노를 누적시키게 되고 이러한 누적된 욕구좌절이 공격성을 유발한다는 욕구좌절 이론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아버지와 아동의 공격성간의 관계에서 약한 관계가 나타난 것은 두 척도의 내용의 차이에 기인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본 연구를 위해 개발한 공격성 척도는 아동의 경우 기존의 연구를 근거로 하였으나, 성인인 아버지의 경우는 유형으로 나눈 공격성 척도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부부관계에서 나타나는 공격적 행동을 중심으로 한 Straus (1979) 척도를 일부 참고하고 반응적인 공격성의 경우는 조작적 정의에 근거하여 본 연구자가 개발하였다. 따라서 척도의 타당성 문제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의 공격간에 약한 상관관계가 나타난 것은 핀란드에서 이루어진 30여년 동안의 종단적 연구에서 아버지-아들간에는 공격성간에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어머니와 아들간에 공격성간에만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는 결과(Pulkkinen & Laine, 2000)와 비교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양육행동을 연구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으나 결국 공격성간의 직접적인 관계 대신 양육행동의 역할을 가정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Pulkkinen 과 Laine(2000), 그리고 중국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Hart 등(2000)의 연구결과는 아버지의 공격성은 아들의 공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신 아버지의 양육행동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결론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본다. 즉,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연구 변인으로 선정하지 않았으므로 직접적인

비교가 힘들지만, 중국과 미국의 비교연구에서 미국 어머니의 강압적 또는 민주적 양육행동은 아들의 관계적 공격성 및 외현적 공격성과 유의한 상관이 있었지만, 중국의 경우는 이러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고 대신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남아의 공격성에 중요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난 Hart 등(2000)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따라서 공격성 발달에서 부모의 영향력은 문화에 따라 그 영향력이 다르며, 가부장적이고 공격성이 남성적인 특성으로 조장되고 있는 동양 문화권에서 특히 어머니보다는 아버지의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예로부터 부모는 자녀 특히, 아들이 다른 아이와의 관계나 싸움에서 지는 것을 남자답지 않은 것으로 보아 용납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더욱이 근래에 이르러는 점차 더 경쟁적인 사회가 되어감에 따라 부모는 자녀들에게 은연중에 남보다 우위에 서야된다는 의식을 갖게 하고 공격적인 성향을 강조하게 된다고 본다. 이러한 부모의 태도는 공격성을 조장하는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 결과 아동은 공격성을 발달시키게 된다.

지금까지 사회인지 이론가들은 반응적 공격성을 인지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귀인성향으로 설명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귀인성향이 어떻게 발달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된 바가 없다. 따라서 부모의 지나친 경쟁 위주의 가치관이나 남성성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는 아버지의 공격성 조장 행동은 남아의 반응적인 공격성을 높이며 공격성은 이와 관련된 양육행동을 통해 세대간 전이된다는 본 연구 결과는 부모들의 양육방식에 많은 것을 시사한다. 특히 반응적 공격성은 감정적으로 고조된 상태의 방어적 공격성이므로 각급 학교에서의 또래간 폭력이나

가족내 폭력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보며, 예상치 못한 큰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앞으로 가정, 학교, 사회 전반에 만연하고 있는 공격적 행동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응적 공격성의 발달적 기원, 특히 가족의 발달적 역사를 중심으로 한 연구자의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공격성 연구들이 주로 신체적 공격성을 중심으로 연구한데 착안하여 공격성의 유형을 외현적, 관계적 및 반응적 공격성으로 구분하여 연구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선행연구들에서 공격성을 문제 행동이나 양육행동과 관련지어 연구한데 비해, 비록 회고적이기는 하나, 공격성의 예측변인으로 발달적인 역사를 중심으로 그 예측 변인을 파악하고자 한 점에서 중요성을 지닌다. 그러나 본 연구는 공격성발달에 관련된 요인으로 양육행동 및 세대간 전이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공격적인 성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기질적 성향은 연구 변인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행동은 아동의 부정적인 기질과 연합되었을 때 가장 공격성이 높게 나타나며(Rubin et al., 1998), 정서 조절 능력의 결함이 처벌적인 양육행동과 공격성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발달기제인 것으로 시사되고(박혜경, 2001; 정준미, 이재연, 2000; Shield & Cicchetti, 1998) 있어, 앞으로 양육행동을 중심으로 한 세대간 전이에서 이를 중재하는 요인으로 기질이나 정서의 영향력을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자녀에게 미치는 부모의 행동이나 양육의 영향력이 같은 성의 부모일 경우 더 큰 한편, 아버지의 공격성의 영향이 아들에 비해 약하기는 하나 딸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시사되고 있어(Verlaan & Schwartzman, 2002), 부모와 자녀 모두를 대상으로 그 상대적 영향력을 연구하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민정 (2000). 부모의 양육행동, 부부갈등 및 아동의 형제자매관계와 아동의 공격성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노치영(1988). 가정폭력에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성연 (1989).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개발에 관한 일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7(4), 151-165.
- 박혜경(2001).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남아의 정서조절 능력과 공격성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오미경(1997). 감각추구 성향과 사회화 요인이 남녀 청소년의 위험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윤완기(1994). 부모의 체벌과 아동의 공격성간의 관계.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현순(1982).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준미, 이재연(2000). 부모의 아동기 폭력경험과 자녀체벌과의 관계모형. *아동학회지* 21(1), 85-98.
- Bandura, A. (1973). *Aggression : A social learning analysis*. NY : Holt.
- Bandura, A. (1977). *Social learning theory*. NJ : Prentice Hall.
- Belsky, J., Hsieh, K., Jaffee, S., & Silva, P.(2001). *Child-rearing antecedents of intergenerational*

- relations in young adulthood. *Developmental Psychology*, 37(6), 801- 813.
- Berkowitz, L. (1993). *Aggression : Its causes, consequences, and control*. NY : Academic Press.
- Bee, H. (1997). *The developing child*. NY: Longman.
- Chamberlain, P., & Patterson, G. R. (1995). Discipline and child compliance. In M. Bornstein(Ed.), *Handbook of Parenting Vol. IV*(pp. 205-225). NJ : LEA.
- Coie, J. D., & Dodge, K. A. (1998).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factors in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in children's peer grou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6), 1146-1158.
- Crick, N., Casas, J., & Mosher, M. (1997). Relational and overt aggression in preschool. *Developmental Psychology*, 33(4), 579-588.
- Crick, N., Grotpeter, J. (1995). Relational aggression, gender, and social-psychologic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6, 710-722.
- Crick, N. R., & Grotpeter, J. (1995). Relational aggression : The role of intent attributions, feelings of distress, and provocation type. *Developmental Psychology*, 7, 313-322.
- Crick, N., Werner, N., Casas, J., O'Brien, K., Nelson, D., Grotpeter, J., & Markon, K.(1999). Childhood aggression and gender : A new look at an old problem. In D. Bernstein (Ed.),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Vol. 44*(pp.75-141). Lincoln :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Davis, S., & Allen, J. (1995). *Understanding and breaking the cycle of abuse*. Poster presented at SRCD, Indianapolis.
- Dodge, K., & Coi, J. (1987).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factors in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in children's peer grou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 958-966.
- Eron, L. D. (1982). Parent-child interaction, television violence, and aggression of children. *American Psychologist*, 37, 197-211.
- Hart, C. H., Nelson, D., Robinson, C., Olson, S. F., & Mcneilly-Choque, M. K. (1998). Overt and relational aggression in Russian nursery-school-age children : Parenting style and marital linkage. *Developmental Psychology*, 34, 687-697.
- Hart, C., Yang, C., & Nelson, D. (2001). *Physical and relational aggression : Gender and parenting style linkages i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Paper presented in symposium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Minneapolis, April, 2001.
- Huesmann, L. R., & Miller, L. S.(1994). Long-term effects of repeated exposure to media violence in childhood. In L. R. Huesmann (Ed.), *Aggressive Behavior : Current perspectives* (pp. 153-186). New York : Plenum.
- Huesmann, L. R., Eron, L.D., Lefkowitz, M. M., & Walder, L. O. (1984). Stability of aggression over time and genera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20, 1120-1134.
- Loeber, R., & Stouthamer-Loeber, M. (1998). Development of juvenile aggression and violence : Some common misconceptions and controversies. *American Psychologist*, 53, 242-259.
- Miller, D., Foster, S., Kruger, A., & Weltsch, M. (2001). *Measurement and correlates of relational and physical aggression in adolescence*. Paper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Minneapolis, April, 2001.
- Olweus, D. (1980). Familial and temperamental determinants of aggressive behavior in adolescent boys : A casual analysis. *Developmental Psychology*, 16, 664-660.
- Patterson, G. R., DeBaryshe, B. D. & Ramsey, E. (1989). A developmental perspective on antisocial behavior. *American Psychologist*, 44, 329-335.
- Patterson, G. R., Capaldi, D., & Bank, L. (1991). An

- early starter model for predicting delinquency. In D. J. Pepler & K. H. Rubin (Eds.), *The development and treatment of childhood aggression* (pp. 139-168). Hillsdale, NJ : Erlbaum.
- Pulkkinen, L., & Laine, K. (2000). Gender Differences in Aggression in Past and Present, and The Role of The Parent in The Transmission of Aggression. *ISSBD Abstracts*, p. 191.
- Rubin, K., Stewart, S., & Chen, X. (1995). Parents of aggressive and withdrawn children. In M. Bornstein(Ed.), *Handbook of Parenting Vol. 1* (pp. 255-284). NJ : LEA.
- Rubin, K., Hastings, P., Chen, X., Stewart, & McNichol, K. (1998). Intrapersonal and maternal correlates of aggression, conflict, and externalizing problems in toddlers, *Child Development*, 69(6), 1614-1629.
- Shield, A., & Cicchetti, D. (1998). Reactive aggression among maltreated children : The contributions of attention and emotion dysregulation.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7(4), 381-395.
- Schwartz, D., Chang, L., & Farver, J.(2000). *Correlates of victimization in Chinese children's peer groups*. Paper presented at ISSBD XIV Meeting in Beijing.
- Straus, M. A. (1979). *Measuring intrafamily conflict and violence : The Conflict Tactics(CT) scales*. University of New Hampshire.
- Tomada, G., & Schneider, B. H.(1997). Relational Aggression, gender, and peer acceptance : Invariance across culture, stability over time, and concordance among informants. *Developmental Psychology*, 33(4), 601-609.
- Tremblay, R. (2000). The development of aggressive behavior during childhood : What have we learned in the past century?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4(2), 129-141.
- Verlaan, P., & Schwarzman, A. (2002). Mother's and father's parental adjustment : Links to externalizing behaviour problems in sons and daughter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6(3), 214-224.
- Walker, L. E. (1979). *The battered woman*. NY : Harper & Row.